

고흥군, 유자잎 식품원료 등재로 산업화 기반 마련

유자잎 활용 지역특화 가공품 개발로 농가 소득 증대 기대



유자 열매 사진

/고흥군 제공

/강중수 기자

/강중수 기자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농촌진흥청과 협력해 추진한 '유자잎의 식품원료 등재'가 지난 5월 완료됨에 따라, 유자잎을 활용한 식품 개발과 산업화의 길이 열렸다고 밝혔다.

그동안 유자잎은 전통적으로 차, 떡, 술 등의 원료로 활용해 왔으나, 식품원료로 인정되지 않아 제품 개발과 산업화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군 농업기술센터 유자연연구소는 농촌진흥청과 함께 2023년부터 유자잎의 전통 식용 근거와 관련 자료를 수집·정리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정책 제안을 했으며, 그 결과 유자잎이 식품원료로 정식 등재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번 등재로 유자잎을 차, 분말, 음료, 제과류 등 다양한 식품 소재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으며, 군에서 추진 중인 유자잎차와 유자잎 말차 개발 연구도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보성군여성단체협의회, 100만 원 기탁

보성군여성단체협의회(회장 김미자)가 최근 보성군 청소년문화의집을 방문해 지역 청소년들을 위한 후원금 100만 원을 전달했다.

이번 후원금은 지난 5월 개최된 제28회 서편제보성소리축제 기간 여성단체협의회가 운영한 주말 수익금으로 마련됐으며, 청소년문화의집에서 추진하는 문화·체험 프로그램과 청소년 복지사업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이날 전달식에는 여성단체협의회 회원과 청소년문화의집 관계자 등 5명이 참석해 지역 청소년 지원과 나눔 문화 확산에 뜻을 모았다. 김미자 회장은 "축제 기간 회원들이 한마음으로 마련한 수익금을 지역 청소년들을 위해 사용할 수 있어 뜻깊다"며 "청소년들이 꿈과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작은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후원금은 지역 청소년들의 문화·체험 활동과 복지사업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해남군, 하계 대학생 아르바이트 258명 모집

해남군은 여름방학을 맞아 대학생들에게 군정업무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하계 대학생 아르바이트 참여자를 모집한다.

이번 아르바이트 모집인원은 총 258명으로 1차와 2차로 나누어 각각 10일간 운영된다. 신청자격은 공고일 기준 부모 또는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남군에 있는 2년제 대학 이상 재학생이다.

신청기간은 6월 8일부터 6월 17일까지이며, 군 실과소 및 관광지 근무 희망자는 해남군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읍면사무소 및 지역아동센터 근무 희망자는 해당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군 실과소 및 관광지 근무 희망자는 6월 24일 오후 3시 해남군청 대회의실에서 대면 공개 추첨을 통해 참석자에 한해 선발하며, 읍면사무소 및 지역아동센터 근무 희망자는 읍면사무소에서 자체적으로 선발할 예정이다.

진도군, 응급의료협의회 간담회 개최

진도군보건소와 진도소방서, 진도전남병원, 진도한국병원은 지역 응급의료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응급의료협의회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진도전남병원에 응급실이 신규로 개설됨에 따라 지역에 있는 응급의료기관과 유관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군민들에게 더욱 신속하고 안정적인 응급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진도군 내 응급실은 단일체계로 운영됐지만, 진도전남병원의 응급실 개설로 지역 응급의료 시설(인프라)이 확대되면서 응급환자 대응 역량 또한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간담회에는 각 기관 관계자가 참석해 응급환자 발생 시 이송 체계 개선 방안, 응급의료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응급환자 이송과 수용 시 문제점 공유, 건의 사항 등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기영 기자

장흥군, 제71회 전라남도 현충일 추념식 거행

장흥군은 제71회 현충일을 맞아 6월 6일 충혼탑 광장에서 전라남도 현충일 추념식을 거행했다.

이번 추념식은 나라를 위해 헌신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그 뜻을 계승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올해는 전라남도 현충일 추념식이 장흥에서 개최돼 보훈의 의미를 함께 되새기는 뜻깊은 시간이 됐다.

이날 행사에는 김영록 전라남도 지사와 장흥군 부군수를 비롯해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보훈단체 관계자, 기관·사회단체장, 학생, 군민 등 400여 명이 참석해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추모의 뜻을 함께했다.

추념식은 오전 10시 전국적으로 울려 퍼진 사이렌에 맞춘 묵념을 시작으로 국기에 대한 경례, 애국가 제창, 헌화 및 분향 순으로 진행됐다.

/백두연 기자

완도해경, 제71회 현충일 추념식 참석...국민 안전 수호 다짐



제 71회 현충일 추념식 참석 사진

/완도해경 홍보팀 제공

완도해양경찰서(서장 김태환)는 6일 제71회 현충일을 맞아 완도군 충혼탑에서 열린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해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나라사랑의 뜻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추념식은 완도군이 주관한 가운데 완도군수와 기관·단체장,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군민 등이 참석했으며, 완도해양경찰서에서는 서장을 비롯해 각 과장 등 간부 직원들도 함께했다.

행사는 국민의례를 시작으로 애국가 제창, 묵념, 추념사, 현충일 노래 제창 등의 순으로 진행됐으며 참석자들은 조국을 위해 헌신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넋을 기리며 감사와 추모의 마음을 전했다.

특히 완도해경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선열들의 애국정신을 되새기고, 해양주권 수호와 국민의

생명·안전보호 라는 해양경찰 본연의 임무를 더욱 충실히 수행할 것을 다짐했다.

또한 경찰서와 관내 파출소에서 조기를 게양하고 현충일의 의미를 되새기며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추모의 뜻을 함께했다.

김태환 완도해경서장은 "오늘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평화는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의 숭고한 희생 위에 이루어진 것"이라며, "그 고귀한 뜻을 가슴 깊이 새기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바다를 만들기 위해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완도해경은 경찰서와 관내 파출소에도 조기를 게양하며 현충일의 의미를 되새겼다. 앞으로도 순국선열의 뜻을 이어받아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해양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이문수 기자

